

경남,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3억' 확보

창원 등 3개 시 36개소 지원
주민 생활편의 향상·복지증진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 발굴”

경상남도는 국토교통부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창원 시 등 3개 시 36개소에 총 113억 원(국비 90억 원, 지방비 2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61.146㎢(창원시 248.368㎢, 김해시 109.153㎢, 양산시 97.102㎢, 함안군 6.523㎢)다.

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606개소에 1768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화전 등 생활기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복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과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내년에는 농로 및 마을 안길 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0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4개소, 구역 내 공원 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개

소 등 총 36개소에 사업비 1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시군별로 ▲창원시 17개소(안민고개길 조성사업 외 16개소) ▲김해시 15개소(대동 시례저수지누리길 조성사업 외 14개소) ▲양산시 4개소(창기마을 누리길 조성사업 외 3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8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4개소에 선정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 사례에도 선정되는 등 생활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복지 조성 및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며 구역 및 주변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하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제공사업'도 시행한다.

곽근석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민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녹색 여가공간 조성 대상지 및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더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김영찬 기자

metrobusan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올로 갈맷길 함께 걷기' 운영

부산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올로(YOLO) 갈맷길 함께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하고 오는 15일 오전 사하구 다대포 낙조분수 야외광장에서 개최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 국내·외 관광객 등과 함께 올로 갈맷길을 향유하며 건자'라는 콘셉트로 누구나 전문 트레킹 가이드와 함께 테마별로 부산 갈맷길을 걸어볼 수 있다.

프로그램은 ▲정규 갈맷길 코스걷기 ▲올로(YOLO) 갈맷길 테마걷기 ▲달빛 갈맷길 테마걷기 ▲함께 갈맷길 걷기 등 총 6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주시

제1호 '경주 야생화일기' 지정

경주 제1호 민간정원 '경주야생화일기'가 최근 등록을 마쳤다.

경주시는 13일 강동면 왕신리 1270-1 일원에 위치한 '경주 야생화일기'가 경북 제8호 민간정원 겸 경주 제1호 민간정원으로 지난달 지정등록됐다고 밝혔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경북도지사가 지정하는 문자 그대로 민간정원이다. 이번에 민간정원으로 지정된 '경주 야생화일기'는 약 4480㎡ 규모로 총 213종의 초화류, 관목, 교목이 식재된 카페 및 식당 겸 꽃집이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진주시

'치매극복의 날' 주간 캠페인

진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만드는 치매 친화 사회를 위해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와 '극복 주간 캠페인'을 펼친다.

치매 극복의 날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된 날로, 2007년 치매관리법에 따라 매년 9월 21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시는 치매극복의 날 기념 행사를 16일 오전 9시 상평동 송림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자·가족들이 참여하며 난타, 판가요, 하모니카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진주(경남)=김영찬 기자

남해군

'원스톱관광플랫폼' 명칭 공모

남해군은 '남해군 원스톱관광플랫폼'의 명칭을 오는 1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원스톱관광플랫폼은 관내 숙박, 음식, 체험 시설 등 정보 제공과 예약·결제까지 한번에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스마트관광의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관광객 편의 증진, 그리고 관광 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

남해군 원스톱관광플랫폼은 오는 11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오픈할 계획이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포항, 물 절약 ESG 경영 '확산'

KT커머스 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물 사용 실태 진단해 기술 지원

포항시가 KT커머스와 손잡고 물 절약 사업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 나선다.

포항시는 13일 시청에서 '물 절약 전문업'(WASCO: Water Saving Company) 기업인 KT커머스와 '물 절약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항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시설의 1등급 양변기 등 절수설비 교체로 물 절약 사업 촉진 및 ESG 경영을 실천하고 절수설비 사용 의무화 등 법규 준수에 앞장설 계획이며, KT커머스는 시청사 본관의 물 사용 실태를 진단해 절수설비 설치 등 관련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시

청사, 구청 등 공공시설의 절수설비 보급 및 물 절약 캠페인을 시행해 ESG 가치 실천이 포항지역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조창환 KT커머스 대표는 "물 절약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ESG 실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포항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물 절약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통해 포항시의 물 사용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등 물 절약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물 절약 실천 분위기가 지역 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역외기업 간담회.

대구,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본격화

서비스형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대구광역시는 블록체인 대구 실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블록체인 유망기업과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기술로 정보통신기술, 혁신금융, 디지털자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구는 지난 5월 과기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수성구 알

파시티에 유치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개발 환경구축과 유망기업 육성 등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해 수도권에 집중된 블록체인 산업의 지역 확산을 꾀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상용 메인넷 2종과 자체 개발 대구테스트넷을 블록체인 서비스형 기술개발 플랫폼(BaaS Platform)으로 구축해 기업에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다양한 메인넷을 자유롭게 활용해 블록체인 노드를 생성하고 서비스 개발과 기술 검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업에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영천,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총력

"체계적인 위기도 조사 절차 마련"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는 전국적으로 2018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약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으며,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전체 고독사의 52%가 50~60대 남성이라는 점이다. 고독사의 절반이 5060남성에 분포한 점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에 따라 중장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영천시는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위기도 조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실적, 공과금 체납, 가족의 사망 등 위기 사유를 고려하여 조사 대상자 2687명을 추출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고독사 위기도 조사 문항"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위기도 조사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조례("영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의 개정 조례안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영천(경북)=이상호 기자

울산,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 54억 확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불편 해소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총 6건이 선정돼 국비 54억 3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비 13억 7300만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68억 원에 달한다.

선정된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 기반 사업 3건과 구역 내 경관개선, 누리길 등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환경문화 사업 3건을 합쳐 모두 6건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축사사색의길 조성사업(9억 원) ▲무룡산정상 전망쉼터 조성사업(9억 원) ▲대운산 여가복지 조성사업(10억 원)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사업(12억 원) 등이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